

- 1.종교다원주의 배격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59호  
11월 7일  
2020년  
토요일

#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 한국교회언론회 제19회 총회

조용목 목사 설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밝은 빛이 비취지길”



### 신임 대표에 이억주 목사 추대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10월 29일(목) 양평 덕힐 하우스에서 제19회 총회 및 대표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는 예배로, 제2부는 총회로, 제3부는 대표 이·취임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제1부 예배에서는 공동대표 황규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조성원 목사의 기도, 전문위원 최흥호 목사의 성경봉독 이후, 김은경 솔리스트의 영상찬양을 드렸다.

고분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는 열 5:8-9 말씀을 본문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조 목사는 “사람이란 단계론 기준과 원칙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사물을 분별하는 원칙이다. 한국교회언론회의 모든 논평은 논

조가 일관성이 있다. 성경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확고하고 용어들이 성경에 부합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인 줄 안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언론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밝은 빛이 비취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하였다.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의 광고 후, 명예대표 박봉상 목사의 축도로 제1부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제2부 총회는 대표 유만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사 최원호 목사의 기도, 서기 조성원 목사가 회원 61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하여 정관에 따라 총회가 성립됨을 확인하니, 이에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임원 개선에서 대표에 이억주 목사, 신임 공동대표에 이만욱 목사(파주 총민교회), 박정근 목사(거제 교회교회), 심하보 목사(은평 제일교회)를 선출하였고, 이사에 권오현 목사(서울시 민교회)를, 전문위원에 김관상 (C제네 회장), 권순범 (KBS 정책실장 역임),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를 추가 선임하기로 하였다.

제3부 대표 이·취임식에서는 공동대표 하남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먼저 2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언론회의 활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사 한상필 목사가 기도한 후, 박봉상 명예대표가 유만석 직전대표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유 목사는 이만욱을 통해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동역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였다.

이어서 공로이사 한상필 목사가 신임대표를 소개하고 유만석 목사가 이억주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였다. 이억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는 말씀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축사를 맡은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수호하는 한국교회언론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큰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하였다. 박재현 목사가 축사를, 홍갑홍 선생이 바이올린 축주로 축하를 전하였다.

이날 한국교회언론회는 변함없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알리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며, 새로운 인재들과의 동역과,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 ‘탁월한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조용목 목사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사 55:8,9)

배운 것이 적어도 생각하는 태도가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워도 생각이 유지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의 자기 생각이 내일의 자기 인격이 되고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생각하는 일의 중대함과 아울러 탁월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는 일의 중대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저 그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 23:7)고 하였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렐 6:19)고 하였습니다. 성경 율가에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생각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재앙이 대단히 많았고 일곱 아들과 세 딸과 함께 유복한 생활을 하던 욥이 하루아침에 종들과 짐승들을 잃고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다 잃었을 뿐 아니라, 몸 전체가 악성 종기로 뒤덮여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욥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느 날부터 후시그에게 무서운 재난이 닥쳐오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었고 그는 그러한 생각이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생각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품성과 판단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앙을 불러들이게도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게도 합니다.

**둘째, 탁월한 생각을 하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탁월한 생각 중에 가장 탁월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과 용사들이 가졌던 탁월한 행동은 그들이 가진 탁월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생각의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믿음의 위인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가차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열두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는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의 차이를 매우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열정탐꾼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 파멸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가나안을 기점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한편 우리의 생각을 살펴십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생각과 발자취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아등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아도 여러분의 생각은 현실에 묶이지 말고 내일에 대하여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변화를 생각하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신령한 자, 사랑 받는 자, 부유한 자입니다. 승리자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기쁨, 시대, 장소, 남녀의 성, 유전적 자질과 같이 사람에게서는 변경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조건들이 그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주어진 상황을 능가할 만큼 그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죽음 후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현실과 미래와 영원한 삶에까지 미치는 탁월하고 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제68차 총회 제17회 임원회

## 코로나19 예배 회복 위해 기도

총회 방역준수하며 일부 일정 추진하기로



총회장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17회 임원회가 지난 10월 30일(금) 오전 11시 카카오톡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세계 각국이 대책에 부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합 동영상 통발에서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정영진 목사의 기도, 회계 김건수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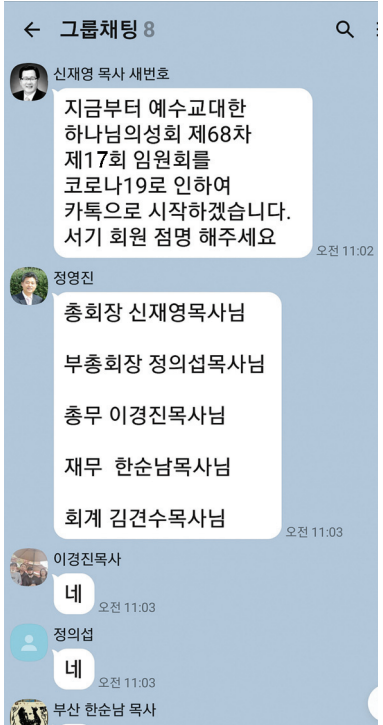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신 18:15-2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전진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2021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서류심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2일(목) 실시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도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

주소변경 보고, 2021년도 목사 고시 대상자 중 미혼 이혼자 심의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2021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연기하기로 했으며, 일정을 조율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 하나님 뜻에 합한 자 선발 위해 최선

2021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10월 22일(목)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목사고시 접수자에 대한 서류심사 모임을 갖고 상세한 자격검토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영준 목사의 사회로 고시위원 이봉근 목사의 기도,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봉근 목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자들이 선발되게 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과정 순서 절차 등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이어 이석호 목사는 빌 2: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목사고시 응시생들에 대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여나 부적격자가 있는지 특히 미혼, 이혼에 대한 자격을 살펴보고 목사고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응시생 가운데 부족한 서류를 일부 보완하도록 했다.

2021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과 구체적인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펴가며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 미래목회포럼, ‘교회가 교회다워 지도록’

16-3차 포럼 주강사 박동찬 목사, 한국교회 싱크탱크 구성 제안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이 지난 10월 22일(목) 웨비나서울플라스크강남호텔에서 ‘제16-3차 포럼’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동찬 목사(일신광림교회)는 ‘뉴노멀 시대, 뉴미니스트리’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기독교계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분석했다.

박 목사는 “앞으로 모든 것이 코로나와 함께 사는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며 “되는데 대로 흘러갈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는 온라인 처지, 인터넷 처지가 등장했고, 교회마다 방송국을 갖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며 “네이버나 구글처럼 기독교 포털사이트가 만들어져서 각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을 뽑아 나눠 주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콘텐츠 개발원을 두어야 한다”고



제16-3차 포럼

제시했다. 또한 “배스컴의 영향으로, 많은 교인들 안에 이웃이 중요하다는 생각의 변화가 왔다.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이타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동했다”며 “이는 교회가 앞장서 왔던 것으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목사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현상들로 인터넷 교회가 가나안 성도가 증가

할 것이라고 봤다. 또 교회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작은 교회가 줄어든고 이중직 목회자들은 늘어날 것 등을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가정경제, 교회의 재정, 선교활동, 기독교NGO 등 연관 기관이 계속 하락하며 “결국 빛을 잃은 교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현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는 신화와 작업을 시급한 과제 로 꼽았다.

## 희망친구 기아대책, 저소득 아동 학습 공간 지원

“이젠 깨끗한 공부방에서 미래 희망 쑥쑥 키워요”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습 공간을 지원하는 ‘기대꿈꾸는방’ 4호의 주거공간 정비 및 학습 공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월 22일(목) 밝혔다.

‘기대꿈꾸는방’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가정 내 학습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아동을 위해 기아대책이 2018년부터 시



작한 주거 공간 개·보수 및 학습 공간 조성 사업이다. 3년 전 7남매를 위한 맞춤형 공부방을 조성한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가구의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주거 및 학습 공간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 진행된 ‘기대꿈꾸는방’ 4호 사업에는 이전보다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나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이종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실내 위생 상태를 정비하고 깨끗해진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주거 공간 전체를 도배·장판 교체 작업하고 방역 및 청소와 더불어 체계적인 수납정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기구를 제작해 지원하고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도서와 학습교구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으로 새롭게 공부방을 갖게 된 아동은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상통화로 친구에게 자랑도 하고, 집에도 초대하고 싶다”면서 새 학습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 기감, 동성애축제 축복 목사에 징계

교단 헌법이 정한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 행위’ 범과에 해당

동성애 축제에 참석 축복기도를 한 김리교 목사에게 ‘정직 2년’이 선고됐다. 정직이란 설교, 성찬집례 등 교역자로서의 모든 종교행위를 금하는 징계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부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지난 10월 15일 경기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동성애 축제에서 축복기도를 올린 이동환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동환 목사의 행위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이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사회법에서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목사 임명을 면하는 ‘면직’을 재판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이동환 목사의 재판과 관련 이 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측은 ‘축복이 죄냐는 프레임’을 내세우나,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논의의 핵심이었다는 것이 재판위원회의 설명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동환 목사는 심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한다.

재판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축복은 얼마든지 목회적 차원에

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축복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면서 “이동환 목사가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기감 교단 교역자의 경우 재판은 2심제로 된다.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진행된다.



## 카이캉, 2020 회원총회 개최 신임원 조직

추후 임원회 소집해 모든 후속처리 가능하도록 임시의장 지정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캉) 2020 회원총회가 지난 10월 27일(토) 서울 양재동 뿔뿔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원총회에서 카이캉은 20여 명의 총회 임원을 조직했으며,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통과시켰다.

지난 3년간 연합회장으로 섬겨온 송용필 목사는 회원들의 박수 속에 임기를 마쳤다. 카이캉은 새롭게 추천되어 선출된 20명의 신임원들 가운데 회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에게 임원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에 임원회를 개최해 신임 연합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 현

장에서는 추후 임원회를 소집해 이 모든 후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임시의장을 지정해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까지 이뤄졌다.

이번 회원총회를 준비하면서 카이캉은 각별히 방역지침 준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카이캉은 회원총회 일정을 공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수도권 실내 집합기 40인원을 준수하기 위해 수시로 서초구청에 알려 지도를 받았다. 이날 직접 총회 현장을 찾은 회원들 가운데 방역지침에 따라 더 이상의 인원수용이 불가능한 까닭에 안타깝게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이들도 있었다.

카이캉 회원과 진행위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회원총회에 참여했고, 현장에 회원 28명 외에 진행요원, 방역요원, 안전요원 등 본부 직원들도 함께 했다.



## 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이성화 이사장 취임

“시대에 맞는 전략 마련… 코로나19 위기상황 빠르게 극복”

예장합동 소속 총회세계선교회(GMS)가 최근 GMS선교본부 예배당에서 이사장 이취임감사예배를 열었다.

신임 이사장 이성화 목사는 “현장선교사와 본국의 후원교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면서 “소통을 통해 시대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부 예배는 GMS이사회 서기 최상호 목사의 사회, 부이사장 김미열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서정수 목사의 성경봉독, 부전서문교회 찬양대의 찬양,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설교,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의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선교의 프로슈머가 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새시대에 맞는 복음전파 방안을 모색하자고 권면했다.



2부 이·취임식은 부이사장 박의서 목사의 사회, 회목서기 김장교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먼저 취임식에서는 김장교 목사와 이임 이사회 임원들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취임식은 부이사장 신용기 목사의 이사회 임원 소개, 증경이사장 김성길 목사의 취임기도, 이성화 목사에게 대한 취임패 증정, 소강석 목사에게 대한 GMS총회 취임축하패 증정, 이성화 목사의 취임사 순으로 이어졌다.

## 이스라엘 관광부, 오리트 파르카쉬 하코헨 장관

이스라엘 관광청은 이스라엘 관광부에 새로운 장관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주 이스라엘 관광부는 기존에 전략담당 장관을 역임했던 오리트 파르카쉬 하코헨(Orit Parkash-Hacohen)을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했다.

파르카쉬 하코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해 COVID-19로 인해 막힌 하늘길 및 입출국 관련 정책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관광 활성화가 차질없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새롭게 부임한 파르카쉬 하코헨 장관은 2003년 이스라엘 전역 공공 유틸리티 기관의



은 바 있다. 2019년 크네세트(이스라엘 국회)에 선출됐고, 2020년 5월 이스라엘 국가 안보 내각의 일원이 되어 급변 관광부를 새롭게 이끌어가게 됐다.

이스라엘관광청 조정윤 소장은 “이스라

엘 관광부에 새 장관님이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파르카쉬 하코헨 장관과 함께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해외 관광 산업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스라엘 재방문 의사와 하늘길 재개 관련 논의가 급증함에 따라 관광부는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항공노선 재개에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린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본청은 막혔던 하늘길의 운항 재개 및 안전한 이스라엘 여행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몽기총, 헝커르에 제2인성교회 완공해 봉헌

인성바이오 회장 손인춘 권사와 임원진들 후원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몽골 복음화 기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몽골기독교총연합교회(법인회)장 김동근 장로-이하 몽기총은 지난 10월 23일(금) 믿음의 기업 인성바이오 회장 손인춘 권사와 임원진들의 후원으로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헝커르 마을에 ‘제2인성교회

(헝커르교회)’를 완공해 봉헌했다.

이번 게르성전 건축 후원은 광명광산교회 강봉중 목사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교회가 있던 헝커르 마을 현지인들이 매우 제2인성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게르성전을 후원한 손인춘 권사는 죽을병

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치유 역사를 체험하고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여성 경제인이다.

기업의 이익을 선교와 사회복지 환원에 우선시하는 기업경영으로 이미 중국, 몽골 선교 등 많은 활동을 고간진행해 왔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손 권사와 임원진들이 몽골 복음화를 위해 후원으로 몽골 제2인성교회인 헝커르 교회 게르성전이 건축하게 됐다.

몽기총 관계자는 “울란바토르시 외곽에 위치한 헝커르마을은 기후적으로나 생활 환경 면에서 예전부터 살기 힘든 동네로 꼽히던 곳이다”면서 “복음의 씨앗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몽골의 젊은 목회자를 통해 지역영혼 구원을 위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루터회, 제50차 정기총회 열어

한국교회총연합 가입 추진 보류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김은섭 목사, 이하 루터회) 제50차 정기총회가 최근 서울 후암동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루터회 총회는 그동안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번나절 일정으로 축소하고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의 시스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무에서는 결산, 감사 보고, 수지 예산(안)보고 및 승인 등이 이어졌으며, 개교회 보고 및 각 위원회, 기관 보고들은 사전 전달

된 서면 자료로 보고 후 질의로 시간을 단축했다.

보결권자에서 회계에는 박정기 목사(대전제일루터교회), 감사에 송창민 목사(빛고을루터교회)가 각각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다.

루터회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총협) 가입 추진에 대해 보류했다.

개교회예에서 ‘꾸준히 선을 행하라(갈 6:1-10)’는 제목으로 설교한 총회장 김은섭

목사는 “루터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낙심할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흔들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며 “반면 변화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 유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한 선을 행해야 한다”며 “주 안에서 꾸준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 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 동성애법 폐지 촉구

“2020년 제10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

##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주최 2020년 제10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지난 10월 22일(목) 오전 7시 아산동산교회(황기식 목사, 상임회장에) 개최되었다.

먼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른 시간 나라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국경감사 기간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명수 의원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세계와 이 나라에서 속히 중국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고, 나라의 정치

가 바로 서가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였다.

이어진 예배는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홍석용 목사(부회장)의 대표기도와 고문 강상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강목사는 시 144:12-15 말씀을 본분으로 ‘이상적 국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국가로 청소년층이 건전해야 하고, 사회정의가 확립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상적인 국가가 설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했다. 이어 본회 고문 김소운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2부 보고회 및 공지사향 순서로 상임회장 조아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먼저, 국회의원 이명수의원(국민의힘)은 국경 감사 기간 중이지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 가겠다고 하였다.

이어 아산시기독교연합회 김병환 목사(아기연 대표회장)는 한 해 동안 아기연의 사업 협조에 감사하며 11월 12일 연합회 정기총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충남도 연합회 공지사향으로 장현원 목사(부회장)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목사님 한 분당 각 동마다 3개씩 부착 및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3부 기도회는 박노철 목사(상임위원장)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주제별 순서대로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정팔 목사(상임위원), 2)중국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하여 이승수 목사(상임회장), 3)아기연 부흥과 연합회를 위하여 박귀환 목사(상임회장), 4)포괄적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폐지를 위하여 온재현 목사(상



임위원), 5)경찰복음화를 위하여 박건구 목사(지도위원)의 기도 순으로 이어졌고, 모든 참석자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본회 총무 정진화 목사의 광고 후 동산교회에서 준비된 장소로 이동하여 조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목양교회로 향하였다.



## 성령의 역사로 바닷가 우상마을을 변화시킨다

###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11월 2일(월) 삼척공촌중앙교회(담임 성백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부흥과 발전, 화합과 단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 받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동안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갖는 월례회에 회원들은 만남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이정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전원교회 원기소 목사의 대표기도, 삼척공촌중앙교회 성백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성목사는 막 4:26-29 말씀을 본분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려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말씀을 전파하



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특히 우상으로 가득한 마을을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말씀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성지교회 진장길 목사의 인도로 나라의 안녕과 발전, 교단과 지방회 부흥을 위해, 장소를 허락하신 공촌교회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교단 증경총회장 이정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의 인도로 열린 회의에서는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공촌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인근 정호항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등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 복의 근원 되어 복음화 앞장설 것 다짐

###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김영권 목사)는 지난 10월 29일(목) 오전 8시 30분에 은혜와진리교회 은양성전에서 10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이인복 목사(송죽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이종한 목사(양북교회)의 기도 이어 증경총회장 진등용 목사가 설교했다. 진목사는 창 12:1-3 말씀을 본분으로 ‘복의 근원이 되자’란 제목으로 “가족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자”고 전하였다. 이어 지방회장 김영권 목사(은혜교회)의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에는 총무 단양으로 아유회를 떠나 정호나루터에서 충주호를 유람선을 타고 1시간가량 구만봉, 옥순봉 등을 보고, 퇴계이항이 단양팔경이라고 명명한 단양의 역사



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감상하였다.

이후에 차량을 이용하여 도담삼봉을 거쳐, 제천 지유에 숲에 방문하여 교제의 시간

을 가졌다. 은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은양에 도착하여 진등용 목사의 기도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각자 지역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 목사안수 및 원로목사 추대, 담임목사 취임 예배

###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정근 목사)는 지난 11월 2일(월) 오전 11시 인천지방회 주관으로 복인천교회(담임 김정근 목사)에서 2020년 목사안수 및 원로목사 추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진원 목사(예수이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손인환 목사(새벽교회)의 기도, 회계 김라한 목사(사랑의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정근 목사(명성순복음교회)는 행 13:21-23 말씀을 본분으로 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것을 축복했다.

이어 2부 목사안수식에서는 지방회장 김정근 목사(명성순복음교회)가 서약, 임직자를 위한 안수위원들의 안수와 기도를 진행



하였으며, 3부에서는 김정근 목사(복인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균 목사(학원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증경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축사,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김주원 목사는 인사와 광고를 통해 인천지방회 목회자들과 복인천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증경회장 반인홍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임마누엘교회 창립예배 드리고 복음 전파 다짐

###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는 지난 10월 31일(토) 오전 11시 서울시 도봉구 창동 487-1에 위치한 임마누엘교회(담임 함금지 전도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끝까지 충성과 순종으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립예배는 윤인주 목사(오순절찬양교회)의 은혜롭고 열정적인 찬양인도와 지방회 총무 이기성 목사(비전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방은혜 목사(임마누엘교회)의 대표기도, 김영록 목사(봉어빵교회)의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에 이어,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목사는 삼상 17:37-40 말씀을 본분으로 ‘다윗의 용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교회가 고전을 하고 힘을 잃어 가는 이때에 용감하게 정리를 하는 담임교역자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임마누엘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윗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으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모든 장애를 잘 극복하고,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며 목회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제시해 주었다.

이어 증경회장 임춘동 목사(성화교회)의 권면과 증경회장 김삼기 목사(사랑과생명교회)의 축사 그리고 회계 김종숙 목사(희복교회)의 헌금 기도, 황금지 전도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감격에 겨워 열심을 다해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함 전도사의 인사말에 이어 축도로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mok2677@kakao.com





## ■ 생명의 말씀 ■



권태진 목사  
·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인간이 주체가 되면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하기 보다는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삼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고별로 집에 초청받은 베드로의 심방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자 합니다.

**1.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는 말씀을 전해 고넬료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라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지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행 10:42)

사람이 죽은 후에는 세상의 심판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역에서는 죽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삶은 육에서 끝나지 않음을 말했습니다.(눅 16:22-26)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함임이 죄 사람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43)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출애굽 때 분설주에 바른 어린양의 피는 오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범죄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2.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행 10:44) 성령의 임재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니”(행 2:38)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행 10:45)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며 놀랐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행 10:46)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마음을 다합니다.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복음화되며 거룩한 빛이 나타납니다.

**3. 베드로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했**

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명입니다.(행 10:47-48)

베드로는 고넬로 가정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하기를 원하여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교화에 오고 싶고 기도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누가 뭐라 해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소망 주시길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행하고 세속 정치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서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고 사막에 생이 흘러넘치는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도시기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주신,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자

금년으로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개혁을 말할 때에 개혁신교(개신교회)가 탄생했다, 혹은 하나의 교회에서 또 하나의 종파가 생겨난 정도로 생각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 원인은 한마디로 당시의 로마교회의 타락, ‘종교타락’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신앙양심의 회복, 성경가치의 재발견,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말할 수 있다. 당시 로마교회는 면죄부 판매, 성물 판매를 통하여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사기극을 벌였으며, 엄격한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리아가 중재자인 것처럼 마리아 숭배도 강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셔서 개혁자들을 등장시키셨다. 천주교 사제(司祭)였던 마틴 루터를 통하여 비텐베르크 성당 개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함으로써로써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하셨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강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의 모토(Motto)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한 지금, 엄중한 현실 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여 제2의 종교개혁을 강요받고 있음을 알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1. 교회는 고감도의 영적 자각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징국까지 몰아친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성경에서 사사(士師)였던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를 쥐어 능력을 상실했다. 한국교회는 지금 머리 꺾인 삼손 같지 않은가? 지난날

의 죄악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회개운동이 있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하셨다.

한국교회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뒀을 인정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께 구해야 한다. 정치적 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로마교회 교권자들이 만들었던 교서(敎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었다.

현재도 인간들이 교회에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교회지도자들도 자신은 죄인의 죄수라고 통회하여야 한다.(딤후 1:15) 자신을 종들의 종이라고 자처했던 교부 암브로시우스(Ambrosius)처럼 말

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진리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 입으로 전한 바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지난 수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욕이 되게 하는 일을 하였는가? 그것이 본심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산 위의 등대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야 한다. 세상이 청산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한다.

**2. 사회적 책임 감당의 사명감을 새롭게 해야 한다.**

복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복음의 능력이며, 그 복음을 담보한 교회의 역할이었다.

영국 여왕 빅토리아는 국가의 보물이 성경이라고 했던 바, 복음이 국가와 사회를

세우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였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가져오셨으므로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1885년 이후, 우리사회는 너무도 바뀌지 않았던가! 너무도 가난하던 나라, 그래서 생겨난 말, ‘3일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복음은 ‘3일이 아니라 굶어 죽어도 도둑질 안 한다’가 되었다. 이것은 신앙의 표본적인 모습이며, 복음이 세상에 너무도 선하고 큰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다.

한국교회는 아직 맛 잃은 소금이 아니다. 불 꺼진 등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고 계신다. 이제 나태함에서, 또는 교만의 자리에서, 패배주의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라고 믿는다.

인류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분연히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 사회에서 반기지 않는 이가 있다 해도, 인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동정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연론회 대표에 그동안 대변인으로 헌신해온 이억주 목사가 추대되었다. 지난 10월 29일(목) 개최된 제19회 총회에서 이억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한국교회연론회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해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역 홀리스 자활센터 개소



서울역 홀리스 자활센터 개소식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26일(월) 오후 서울 구암로 센터 4층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이단체 대표 최성원 목사는 “서울역과 용산역 인근 노숙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 야 한다”고 했다. 010-3062-8282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초청 기도회



대한민국사랑운동본부대사본·대표회장 박종철 목사)는 오는 11월 15일(주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교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1396회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가와 교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합심 기도하며 강사는 김호일(사단) 대한노인회장이었다.

윤항기 목사 ‘은관 문화훈장’ 수상



가수 윤항기 목사가 지난 10월 28일(수)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윤 목사는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문화예술 활동하라는 뜻으로 받아 더욱 섬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을 이룬 70년간 한미동맹 지킴을

## “미국 모독”이라 하는 미주대사는 어느 국민의 대사인가?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북아 안보정세가 심각치 않다. 이런 외중에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외교의 기본을 벗어나 주재국인 미국을 겨냥한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각기 다른 선택을 만들게 할 수 있다. 동북아정세를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대중(對中) 경제 확대를 위해 한국에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클린 네트워크(중국 기업을 배제한 통신망)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립적 입장에 선다는 담배락 외교를 하다가 백련전 구한말 친구가 없어 외톨이가 되어 군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미일조 작전 70주년’ 기념식서 애국주의를 강조한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6·25 전쟁 유적지를 둘러봤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행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날 미국은 70여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어왔으며 그러한 동맹강화를 약속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미친중으로 가면서 동북아 고립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동북아의 현실을 적시하면서 살렘네비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나아가야 할 길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친미교조(親美交中)의 길이라는 것을 천명한다.

**1. 국가안보체제를 뒤흔드는 최근의 동북아정세가 심상치 않아 주목한다.**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는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일핏 듣기에 보통사람들 수준에서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사의 입에서 나온 주재국에 관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 현재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외중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미 간에는 전작권 회수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BTS발언에 대해 유지하기 짝이 없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남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방사포와 미사일로 무력을 과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양동한 환상을 그리고 있는 판에 주미대사까지 여기에 가세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고, 중국 측에 대해서는 한국의 친중 세력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핵무장의 당위성과 대남 주도권 확보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 발언은 아주 좋은 빌미를 주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독불장군처럼 자기만의 자부심을 펼치며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모든 나라가 지극 이익과 상호주의 외교로 참여하게 대립하며 소용돌이치고 있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이 선택해 준다고 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상호자국의 국익이 일치점을 찾을 때라야 실현 가능성이 촉발되는 껍데기 서로의 탐색과 협상이 전제된다. 그런데 자기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것은 외교의 ABC도 모르는 처사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악화시켜 국가안보체제의 해체라는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2. 국가안보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남겼다. 정치와 전쟁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인명 살생을 감수해야 하는 전쟁이 정치적 판단과 권력의 작용으로 남용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똑같은 논리로 국가안보는 다른 수단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감내해야할 위기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조선 왕조 패망의 원인을 보더라도 국가의 운명은 한순간에 버릴 끝으로 내몰리게 됨을 알 수 있다. 왜국 정책이라는 지물쇠로 나라의 빗장을 걸어놓고 사색당파, 세도정치로 세력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가 침략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좋은 본보기이다. 이 땅에는 주인 된 도리로서 주권은 온데간데없고 청·일·러의 열강들이 침략 야욕을 채우는 국도 유린(蹂躪)의 터가 되었다. 마침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싸움터로 안방을 내 주고 말았다. 왜 주인은 주인 행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최후의 승자인 일본에 의해 우리의 주권은 찬탈 당했는데 이를 두고 과연 일본의 침략야욕만을 탓할 수 있었는가? 조선왕조의 외교적 실패와 과오는 없었는가? 한미일로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부재였다. 눈앞에 놓인 밝고된 창기듯이 사사로운 집단 이익주의로 이전투구만을 일삼았던 껍데기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한 안목을 갖지 못했다. 역사와 악은 항상 되풀이 되는 악습을 갖고 있다.

중국 고대의 병법가 손자는 ‘知彼知己 百戰不殆(적 파지기 백전불패)’ 즉 상대편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적도 모르고 있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마치 소동과 고모도가 하늘의 위험불로 전멸해 버리기 전에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국가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국제사회란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와 상호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밀려와 마주치는 변곡점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더라도 언제든 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을 맞게 될 환경조건이다. 그래서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는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혼돈과 위기감으로 채워지고 있다.

**3. 한반도 주변국과의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미래의 좌표를 짚어 놓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한미일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계속 친중, 친북으로 기울어진다면 국가안위는 감점받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질 것이다. 오늘날의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구한말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을 낚은 질서라며 파괴하려 든다.

미꾸라지가 강둑을 허무는 것처럼 너무 인위적인 선택법이라서 위태로워 보인다. 마치 친북, 친중 정책만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꾸며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순수한 상호주의로 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심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우리가 친미를 버리고 친중 관계로 돌아선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우선 지정학적 측면에서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보다 명확해진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다자구조라고들 말한다. 경제동상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는 냉전체제의 틀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 아니다.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체제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대립구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1면에서 계속



포커스	제성호 교수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충신교회 장로
-----	--------------------------------

##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②

③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2016.5. 최소 31개의 성별 내지 성 정체성(gender identities)이 존재함을 공표: 성별 예극자(gender bender), 젠더퀴어(genderqueer), 젠더플루이드(gender fluid), 두 영혼(two spirits), 제3의 성(third sex), 앤드로지너스(androgyinous), 타고난 성(gender gifted), 범성애자(pangender) 등등

○2006년 8월 이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분제를 관장하기 시작

- 소위 성적 지향, 특히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대상이 되고, 또한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가 대정부 사정 권고의 대상으로 화함으로써 동성애 시인에 대한 법적 대응의 변화가 가시화

※ 종래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 중립의 입장에서 ‘낮은 차원의 법적 보호’의 입장으로 이행·전환하는 단조

○이와 관련, 법조계 및 학계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인권 전문가성을 무기로 해서 일방적으로 성적 지향의 법제화를 밀어붙였다고 비판

- 특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적 차별행위’란 용어에 이의제기

III.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과 제정의 의미

1.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

○제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으로는 정부제출안(2007. 12. 12.)1)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2008.1.28.)이 있었으나 심사중 임기만료로 폐기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기본법안(2011.9.15)과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1.122.)이 있었으나 심사중 임기만료로 폐기

○이후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

- 김재연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2012.11.6.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12.11.7.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463), 임기만료로 폐기

-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013.2.12.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발의하여 2013.2.13.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3693), 이후 대표발의 의원 철회

-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013.2.20.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2013.2.21.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3793), 이후 대표발의 의원 철회

○2020.5.29.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법률안이 여러 건 제출될 것으로 예상

- 2020.6.29. 장혜영 의원 등 정의당 의원 10인이 차별금지법안(67개 조문으로 구성)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2020.6.3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차원(장혜영 의원)과 별도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sup>2)</sup>을 발표, 국회가 입법해줄 것을 요청

제안자  
법안명  
동성애 관련 부분  
심사진행  
상태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10인)  
차별금지법안  
·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구별·제한·배제·거부,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  
·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5배 배상금 지급(징벌적 손해배상), 배상금의 하한선은

500만원

- 악의적인가 여부는 ①차별행위의 고의성, ②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해 판단

· 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등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9대 국회 제출, 철회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51인)  
차별금지법안  
○성적 지향, 정체성 등으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면 차별  
○성적 지향이란 이성에,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발한

·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5배 배상금 지급, 배상금의 하한선은 500만원

○악의성 판단기준은 김재연 의원안과 동일

· 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등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9대 국회 제출, 철회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12인)  
차별금지법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가 차별  
○차별행위 가해지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있음

·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 등 개인이나 단체가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동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 또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동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19대 국회 제출, 철회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10인)  
차별금지법안  
○성적 지향, 정체성 등으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

-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5배 배상금 지급, 배상금의 하한선은 500만원

· 사용자,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 등이 차별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 최원식 의원안과 동일

21대 국회  
제출, 소관 상임위 접수

2.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분야의 차별금지법으로 19가지의 법률이 입법되어 있는 상태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외국인투자기본법, 난민법, 에이즈예방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 또는 가치중립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제

- 주요 분야의 차별 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대부분 완비되어 있고, 계속 수정·보완 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사실상 사람의 생활영역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려고 시도

-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 (“성별등”)의 영역에서 차별 규제

※ 장혜영 의원안은 23가지 영역을 열거하고 있으나, 마지막에 ‘등’을 명시하여 제한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열거임을 명시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개인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 또는 가치중립적인 영역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후천적 또는 개인 선택(교정)이 가능하거나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에 대한 차별도 인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일견 좋은 것처럼 생각되기 쉬우나, 이는 모든 사회적 생활영역에서 국민을 잠재적 및 현재적인 ‘차별 행위자(가해자)’와 ‘차별 신고자(피해자)’로 분열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감시사회’로 만들어버리는 동시에, 국가의 개입을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결과 초래

- 또한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기본제도(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남녀혼·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근저에서 흔들 가능성 내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특히 동성애 등 성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소극적 입장, 곧 ‘법적 중립 및 방관’ 내지 ‘낮은 차원의 법적 보호’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적 보호’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

- 장혜영 의원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제1항에서는 67가지의 주요 차별양태를 규정하고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발동하는 방식에 의해 ‘동성애 법적 보호 의지’를 통하게 시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진정’의 대상에서 강력한 ‘제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법적 의미와 효과를 발양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소위 ‘성평등’의 실현, 곧 성적 지향의 평등한 대우와 취급이 법적 강제력에 의해 담보

- 이성애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 지향을 비정상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법적·제도적으로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시 현재의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는 군 전투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에 걸쳐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후에는 기존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다대

IV.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문제점

1. 차별금지법안의 주요내용: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가. 제3의 성 인정

○장혜영 의원안 제2조 제1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안 제2조 제1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으로 정의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결사반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도민연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철회촉구’ 집회와 2차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10월 30일(금)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졌다.

경기도 31시군 1만5000교회 목회자와 350만 성도들 뜻을 같이하는 500여 개 사회단체들은 함께 깨어 일어날 것이라 밝혔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를 계승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6월 29일 발의한 정의당에 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동조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 있어 법안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회정문앞에서 성명서 기자회견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동조하지 말고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차별금지법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므로 목사님 성도님들 많이 참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계승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국가인권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진평연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277,299명이 참여했다. 목회자가 31,526명, 교수가 1,907명, 법조인 218명, 보건 의료인 4,744명 그리고 일반인이 214,801명이다. 특히 이번 서명에 목회자가 대거 참여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심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도민연합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서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동성애(성적지향)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기 위한임은 수차례의 입법 시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여성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녀 외의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성적지향’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 해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종교’, ‘사상’ 등을 두고 있다. ‘종교’ 차별금지 규정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상’ 차별금지 규정으로 반헌법적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해외에서는 직장에서 전도할 때에 징계를 당하거나, 교도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사가 징계를 당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소수 종교’, ‘문화’에 대해서는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모스크와 기도처가 전 지역에 무수히 세워지고, 할랄식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대한민국의 문화는 오히려 역차별받고 이질적인 타문화가 우대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이외에도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차별의도 없이 선의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불평등하게 되었다면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간접차별 조항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고통 유무에 따라 고통한 행위를 인정하는 법조항은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차별마저 불법적인 평등으로 내뱉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의 차등, 가족 수 등에 따른 임금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합리적 차별마저 불법적 차별로 취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명령 제도로 아니라 향후 개정되는 ‘모든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차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등의 시정명령과 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기에,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률안이다.

게다가 헌법상 이중차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우리나라 민사소송 체계와 어긋나는 입증책임의 전전문제 등 차별금지법안은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용납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도민연합은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체제와 조화되지 못하고 건전한 비판마저 차별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량한 여성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0. 10. 30.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일사각오국공목회자연합

### 세기총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

##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서명운동 발대식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넘어 가정의 기본 행복권까지 침해하는 악법

창조섭리의 본질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성애·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서명운동 발대식이 지난 10월 28일(수) 오후 4시 컨싱턴호텔 15층 샌트럴파크홀에서 열렸다.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에서 주최한 이날 발대식은 정성진 목사(천만인서명운동본부 지도목사)의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됐다. 장준봉 목사(한교연 상임회장)의 대표기도, 가수 빛나의 특별찬양 후에 조일래 목사(세기총 대표회장)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55:6-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박위근 목사(총대대표회장)가 축도했다.

조일래牧사는 설교에서 “사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교계 안에서도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동

성애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도 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이 통과되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움직임이 바로 천만인서명운동본부다. 이 반대 운동이 승리를 거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 민족에 큰 축복이 되길 축원한다”고 전했다.

장한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와 황현주 아내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발대식은 국민의례와 홍보영상 시청 후에 김영진 장로(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가 개신교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 한국교회가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냐가 매우 중요하며 힘을 모아 서명운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면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기에 물론고 당당하게 이 운동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광수 목사(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정일웅 박사(학술위원장, 전 총신대 총장)의 취지문 낭독, 김희선 장로의 분부상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위촉식, 황의춘 목사(미주 한인기독교총연합회 중경회장)와 엄기호 목사(한국복음주의총연맹 총재)의 격려사,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기독인회 부회장)의 축사, 자문위원 서대천 목사(예정합동부흥사회 대표회장)의 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부부장에 위촉된 김희선 장로는 인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진행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통해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넘어

우리 가정의 기본 행복권까지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섭리를 위해서는 이 법이 다시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거론될 수 없도록 천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동성애·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 전 국회의원)와 김희선 장로(국회재단법인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 세기총 후원이사장), 전준태 장로(법무법인(유) 로고스 고문변호사), 황우여 장로(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게 되며 교계 지도자들과 전 국회의원, 각 신학대학 전·현직 총장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영화감독 윤학현 감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담은 영화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으며 장한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가 정



책위원장을 맡아 대정부와의 창구를 맡게 된다. 또 정일웅 박사(예4대 총신대학교 총장)가 학술위원장으로, 황우여 박사(전 교육부 장관, 전 사회부총리)가 법률위원장을 맡아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신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들을 조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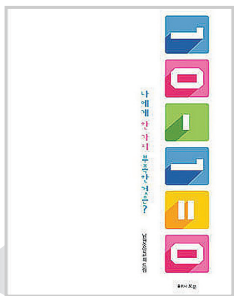
이날 사무총장 신광수牧사는 “홈페이지(<http://www.noqueer.com/>)와 각 교단 및 단체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문입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가지 잘했는데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10-1=0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연장과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집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 화복, 흥망성쇠로 인해 화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탄압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합당하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성한 집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담임목사 063)625-0690

## 진실과 겸손한 인격을 갖춘 목회자가 되자!

###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10월 27일(화) 오전 11시 평내순복음교회(담임 박영수 목사)에서 10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두환 목사(부르신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성완용 목사(순복음성령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목사는 출

7:8-13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영향력을 잃어가는 목회자의 위치를 돌아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온전히 변화되어 나를 내려놓고 진실과 겸손으로 조화된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아울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자신의 무능함을 들어 사명 앞에서 주저하던 모세가 지팡이 이적과 함께 '나를 버리고 보라'에 신 같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입어 순종의 길로 나아갔음을 증거하며 지방회 목회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

만함을 받고 모세와 같은 능력을 덧입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회계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설교자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기념촬영을 하고 곧바로 2부 순서로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지방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월례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각종 회무 처리를 하였고 월례회를 마친 회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평내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사브사브로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사단  
법인

##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 고문
- 자문위원
- 대표회장
- 본부장
- 상임회장
- 공동회장
- 지도위원
- 부회장
- 사무총장
- 상임총무
- 후원회 회장
-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수홍 목사, 노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주병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정병환 목사, 김성권 목사, 광일귀 목사,  
장현원 목사, 고영기 목사, 김주섭 목사, 이재두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이기언 목사, 안덕근 목사, 유현희 목사  
안흥규 목사

한상문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도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http://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타식폴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기독교학술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 대다수의 한국교회와 전 인구의 77%가 입법의 불필요 주장

지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입법될되어 이를 저지하는 한국교회의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9월 21일에는 법사위에 상정되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한국사회가 동성애 허용사회가 되고 한국교회 선교와 복음화 및 목회 활동 및 사회 생활에 지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대다수의 한국교회와 전 인구의 77%가 입법의 불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성적 지향(동성애),” “성적(젠더) 정체성”이란 독소조항을 넣은 소위 평등법으로서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만든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반대 설교와 강연 및 양심적 비문조자 처벌된다. 이 법의 제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이에 기독교학술원은 이 법안은 보편적인 입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안 폐기를 천명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편인권 정신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주도되는 법안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그 발상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있다. 젠더 주류화(gender streaming)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전부적 양성 질서의 결혼과 가정과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 이미 헌법에 보장된 성별, 인종, 신분, 빈부, 지역 차별 등을 금지하는 기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만드는 젠더 주류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문구를 넣어 언론이 동성애 반대 보도나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회의 공적 윤리와 양속(良俗)은 보편 윤리에 의하여 주도되어야지 어떤 특정 편향적 이데올로기(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주도되어서는 안된다. 젠더 주류화 운동은 미풍양속의 대한민국을 성적 중독인 동성애로 몰든 사회로 만드는 망국적 운동이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양성(兩性)인 남녀로 이루어진 결혼, 가정, 사회가 제도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다.

### 2.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한 위장성의 법안이다.

이 법안이 차별금지법의 나쁜 실제(동성애 허용 및 비합법 금지)를 숨기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한 정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란 나쁜 차별금지에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등 정당한 차별금지를 섞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는 독약이 들어 있는 비합법과 유사하다. 만들어 서도 안되고 먹어서는 안된다.

### 3. 차별금지법은 반평등성의 법안이다. 동성애자를 특권시하고 정상인을 억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평등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법은 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로 하여금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를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 평등이라 할 때 소수자를 배려하는 평등이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되 그로 인하여 다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사회에서 평등이란 무차별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가 기에게 합당한 몫을 갖는 차등적 평등이다.

### 4. 차별금지법은 반윤리성의 법안이다.

동성애는 쾌락탐닉적이며, 비도덕적이며, 가정과 결혼을 해체하며, 에이즈 질병의 매체이므로 비보건적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평등이란 인권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인권 사항으로 포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한다. 동성애 허용은 동성애자 개인의 성적 중독을 인정하여 인간성의 폄하(貶下)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가치에 넣어 성평등이라는 인권에 포함될 수 없다. 평등이란 윤리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성적 탐닉이라는 중독에 해당하므로 성평등이란 말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마약 섭취도 음식 섭취한 기본권(성차별금지)에 넣을 수 있는 것과 같다.

### 5. 차별금지법은 반사회성의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성별 구분을 자연적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인위적 사회적 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성별 기준으로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기준이 바뀌면 남자라도 자신이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여자가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태어날 때의 자연적 성이 부정되고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인위적 남성이 자연적 남성과 관계하며,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인위적 여성이 자연적 여성과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허용적으로 바뀌면 사회체제가 바뀌어지고 윤리도덕이 바뀌어진다. 성별정체성이란 선천적인 신체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는 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각자가 생물학적 성에 상관없이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성관계(동성애, 다자성애), 다양한 결합(동성 결혼, 다부다처 등)이 허용되어 혼인과 가정이 무너진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윤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의 문제이며 우리 가정과 사회의 미래 존속의 문제이다.

### 6. 교회의 설교와 선교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침해를 당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강단 설교가 현저히 제한당하고 위축당한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사가 금지된다(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

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의 강단 설교의 가르침은 감시되어 처벌되어, 올바른 성에 대한 교회 강단 설교와 신자들의 비판적 논의가 현저히 금지당하게 된다. 더욱이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전도행위가 동성애 혐오행위가 되어 제 관을 받기에 이른다. 법안에는 ‘차별행위’의 중징 등 시정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 7. 국민 여론 77%가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고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20년 9월 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 77%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금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정직한 여론 호도(囑導)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 없이 ‘차별금지’(성별, 인종, 신분, 나이, 지역 등)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법안 내용)인 성적 지향, 동성애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바람직하는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이다.

### 8. 한국교회는 법도관적으로 연합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각 교단 소속 교회들이 단결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와 양심과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예장 통합 교단은 이미 2018년에 교단적으로 동성애 쿠퍼이션이 이단임을 총회에서 선언했다. 이웃 교단들과 함께 연합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486개 법조, 종교, 시민 단체 연합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이에 반대투쟁하고 있다. KNCC와 기장교단 소속 일부 목회자들이 이를 찬성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지적하는 동성애 허용 반대 입법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 9. 동성애자의 성중독은 지적하나 이들의 인격은 존중하고치유를 도와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기증한 행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 인격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성적 탐닉에서 벗어나도록 선도(善導)해야 한다. 동성애 혐오(homophobia)라는 말은 진동성애 진영이 동성애비판자들을 몰아내는 프레임의 언어다.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기증한 행위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동성애자 인격을 혐오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2020년 10월 22일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이재훈

## 신간 안내

### 성경과 팬데믹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 이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내용도 심각해져 지금 같은 비대면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교회 역시 <비대면 시대의 비대면 목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해석을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이며, 완전한 기준(Canon)이 되는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저자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각종 재앙들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팬데믹(대재앙)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를 설명한다.

저자 : 김자한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10-28 | (145\*215)mm 312p | 판매가 : 18,000원

### 시작에서 답을 찾다



《시작에서 답을 찾다》는 ‘조정민 목사의 창세기 돋보기’ 시리즈 첫 책으로,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써 가시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은 왜 창조 사건으로 시작하는지 창조와 성령님은 무슨 상관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삶에 왜 안식이 필요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남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저자만의 예리한 통찰력과 명쾌한 풀이로 들려준다.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문의 해답과 연결됨을 창세기에서 찾게 해준다.

저자 : 조정민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 2020-10-2 | (140\*205)mm 248p | 판매가 : 14,000원

###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유대교 자료를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본디 신앙 학도가 아닌 것처럼 서술하려 애쓰는 것이 잘못이요 부질없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유대교를 다룬 책을 쓴 신학 학자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관심도 없고 실제 가지지도 않은 ‘종교사’의 관점과 교육 배경을 가진 것처럼 행세했는데,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반면, 나는 유대교를 배울에서 볼 수 있는 모티프와 아주 유사한 혹은 그의 ‘배경’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개개 모티프를 줌으로 줌쳐 보려는(제약해버리는) 반대쪽 함정으로 피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유대교 자체의 관점에서 이해한 유대교와 바울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바울을 비교해보려했다. 나는 이런 노력이 유대교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것이 증명되리라고 기대한다.

저자/역자 : E. P. 샌더스/박덕영, 김영웅 | 출판사 : 바이토르  
발행일 : 2020-10-29 | (147\*225)mm 568p | 판매가 : 19,800원

###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성경 말씀으로 설리를 발견하고 훈련을 통한 사람의 이야기,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한 구인구직 사이트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업무 스트레스는 28.2%,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71.8%로 나타났으며, 퇴사 원인의 81%가 ‘사람’ 때문이었다고 한다. 인간은 전방위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상과 심신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동물의 본능은 약한 개체를 괴롭히는 것이지만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자기보다 강하고 우위에 있는 존재도 시기 질투하며 끌어내리려 하기에, 갈수록 사람이 매달라 가는 이 경쟁사회의 인간관계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저자 : 의연, 그림, 유세은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0-11-02 | (128\*198)mm 256p | 판매가 : 13,000원

쟁을 적극적으로 고취하는 것이 ‘떠나는 선택’을 향한 첫 걸음이다. 마치 차별금지법 반대론자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인듯 매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죽이기’다. 다양한 견해를 짓밟기 때문이다. 공론의 장, 입장부터 막겠다는 것 아닌가.

3. 두 가지 발의안의 내용으로 본 문제점  
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차별금지법 찬성론은 한범 전문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명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듯이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한범의 핵심 원리이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본래 한범이 말하는 평등권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방어’ 또는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문제 삼는 것이다. 개별법으로 특정영역에 한해 대외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차별사안마다 대외적 효력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한범이 말하는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국민들 사이에 평등을 침해하는 법이다. 국가기관이 ‘차별사유’에 대해서만 우대를 하기 때문이다. 유독 차별법 주장하면, 기존 민·형사법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 범죄 피해자들에 비해 차별 피해자들에게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또 다른 평등권 침해 시비를 야기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차별’ 한가 지로만 고통 받는 것이 아니다.

셋째, 인간이 비록 법 앞에선 평등하지만 능력과 욕구에선 차이가 있다. 인간 개개인은 분명 서로 다르다. 로봇이 아니지 않은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계는 서너

지도 없고, 한없이 지루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각기 서로 다른 잠재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인간본성에 부합한다. 결국 이런 인간의 다양성 때문에 평등개념은 상대적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평등개념을 정의하고, 여기에 벗어나는 것을 차별로 금지해 버릴 때 사회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가치관을 가진 권력집단이 차별개념을 독점할 경우 또 다른 차별과 독재가 발생한다.

넷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다른 한 쪽이 크게 훼손된다. 자유와 평등은 인류의 이상이지만, 자유를 늘리면 평등이 줄어들고, 평등을 늘리면 자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발의안은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측 불가능한 개인들의 사적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표현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23조)를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평등의 명분으로 국가가 무분별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권력은 비대해지고 인간은 의존적 존재로 열등해지기 마련이다.

사회는 기제로서 평등한 존재의 집합’이 아니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 사람들의 위대한 협력 관계’아닐까.

다섯째, 법의 도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금지하려는 법의 실익은 얼마나 있는지 공식적 있는 조사가 전혀 없다. 차별금지법이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도입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각각의 차별사유마다 이에 역행하는 ‘교육’, ‘치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을 제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일이고, 국내 법체계의 근간을 개조하는 일이다.

## 긴급진단

이은경 변호사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가? ②

“우리사회 차별 심각성” 항목은 ‘매우 심각하다’는 19.9%, ‘약간 심각하다’는 62.1%,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17.0%,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0%였다. ‘인권위’는 이 수치를 들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우리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본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차별 경험 유무” 항목에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가 72.8%였다. 그리고 정도를 달리 평가해야 할 ‘매우 심각(19.9%)’과 ‘약간 심각(62.1%)’을 동일선상에 두고 이를 단순히 합한 수치를 인용해 마치 우리나라가 차별 공화국인양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우리사회 가장 심각한 차별’ 항목에 관하여 ‘성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란 응답은 7.5%에 불과할 뿐, 성별(30.8%), 고용형태(13.8%), 장애(10.8%), 빈부격차(8.0%)에 따른 차별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인권위’의 ‘차별인식조사’ 당시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한국기독교복원연구원소가 2020. 6. 25. 별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규정에 대해 ‘반대’ 46%, ‘찬성’ 38.8%로 나타났고, 비전문분화위원한국민연합이 2020. 7. 1. 실시한 여론조사도,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대’ 40.8%, ‘찬성’ 32.2%였다. 특히, ‘성적 지향’을

성별 등과 같은 지위로 보는 것에 관하여 한국기독교복원연구원소의 2020. 6. 25. 여론조사는 ‘반대’ 55.2%, ‘찬성’ 31.8%로 나타났고, 비전문분화위원한국민연합의 2020. 7. 1. 여론조사도 ‘반대’ 52.2%, ‘찬성’ 26.9%로 반대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비전문여성인권연합은 2020. 7. 16.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성 의견을 조사했는데, 인간의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찬성’ 30.6%, ‘반대’ 44.0%, ‘잘 모르겠다’ 25.2%였다.

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론화’ 부록 - 사회적 합의는 ‘국민의 알권리’부터!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의미였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은 21대 국회에서 14일만에 10만 명을 돌파해 첫 번째로 청원에 성공했다. 한데, ‘차별금지법 찬성 청원’은 25.123명에 불과해 청원조차 실패했다. 박재균 소장 등 찬성론자들이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무난하게 10만명의 벽을 넘었다. 분명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도 반대 청원은 성사되고 찬성 청원이 실패하면, 이를 빌미로 입법에 더 소극적일 시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라 주장하면서 청원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심지어

20대 국회는 44명의 의원이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실상 ‘인권위’ 박찬온 상임위원조차 ‘평등법이 우리 사회에서 성숙한 논의를 통해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 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안 상정이 충분히 ‘공론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첫째,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였고, 둘째, 충분한 숙의기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유권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가 제공되고, 차별금지법에 관해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가 법제화가 무의미하다는 논거로 들고 있는 “차별인식조사”는 통계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측면이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찬반을 조시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치기는커녕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에 앞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조차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저 ‘입법 세력화’를 위한 정치선전만 행했었을 뿐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는 매우 강력한 입법이므로, 공청회, 여론조사 등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부터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찬반 논쟁을 뜨겁게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시작이다. 모든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대립을 가능하게 하고, 논



# 마지막까지 생명 살린 홍성숙 경사

사랑의 장기기증,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 후 뇌사 장기기증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본부)는 지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김정룡 경찰청장) 제2회의실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故 홍성숙 경사(42세, 여)의 유가족에게 공로장과 감사장 및 초상화 등을 전달했다.

홍 경사는 지난 8월 29일,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끔찍한 사고로 인해 생사를 달리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유가족은 장기기증을 선택, 같은 달 31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남편 안치영 씨(48세)는 “아내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장기기증을 하고자 이야기했었다.”며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지는 생각도 못했지만, 아내의 바람대로 누군가의 삶 속에서 생명이 꽃 피기를 바란다.”는 장기기증 결정계기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구하고 떠난 故 홍성숙 경사의 뜻을 기리는 공로장과 감사장을 김정룡 경찰청장이 직접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유가족을 격려했다. 이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이 홍 경사의 초상화와 경찰관 동료 및 시민들이 남긴 댓글이 담긴 액자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친선대사인 황윤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홍 경사의 사진이 담긴 생명나눔의 별 크리스티얼 패를 전달하며 생명나눔의 뜻을 기렸다.

지난 9월 29일부터 경찰청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구한 故 홍 경사의 사연을 SNS와 블로그, 경찰청 인트라넷을 통해 알렸다.

특히, 결혼 15년 만에 얻은 19개월 된 딸 희망이(태명)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사연이 전해지며 더욱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홍 경사는 2004년 결혼 후 오랫동안 바리던 아기가 태어났지만, 19개월의 짧은 추억만을 남긴 채 안타까운 사고로 딸과 작별해야만 했다. 전달식 이후 충청로역사내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홍보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남편 안치영 씨는 딸과 함께 댓글이 담긴 책자를 보며 “딸이 너무 어려서 엄마가 떠난 사실조차 모른다.”며 “딸이 크면 엄마가 장기기증을 통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걸 꼭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성연 부흥사회, 임원수련회 개최

3개 성결교단, 미래 부흥 모도 다짐

위기의 시대, 성결교회의 미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이하 한성연) 부흥사회(대표회장 성경상 목사는)는 지난 10월 22~23일, 양일간 강원도 원주 오코밸리조트에서 임원수련회를 개최하고 위기의 시대에 성결교회의 미래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3개 성결교단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교회 3개 성결교단(기성, 예성, 나성)이 함께 하는 한성연의 금번 부흥사회 임원수련회는 기성의 주관으로 20명의 임원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정순출 목사(기성 대표회장)의 사회로 성경상 목사(나성 대표회장)의 기도과 노윤식 목사(예성 대표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노 목사는 “초기 성결교회의 뜨거운 구령 열과 복음 전도의 열정을 이어

받아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성 부흥사회 총재 정택 목사도 “시대가 악화수록 하나님의 부르신 소수의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침내 민족의 구원을 이뤘다”리면서 “이 땅에 성결운동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힘쓰자”라고 말했다.

한성연 부흥사회의 비전’이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성연 부흥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교류협력력을 증진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를 위해 코로나 속에서도 오산리기도원 연합성회를 열기로 했으며, 해외연합성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필리핀 등의 선교부흥회도 계획했다. ,

###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1분 마스크전도

코로나19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가족세트전도는 가능하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능력전도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나아간다.

오늘도 기도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실수의 발견을도 인도하셨다. 한 번은 구두가 떨어져 구제가게에서 편한 신을 사며 가게 사장님과 대화를 하였다. 그 분은 불교신자였고 운을 보고 점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영접 기도까지 받았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너무나 기뻐했다. 더구나 성취감이 한층 더했다. 그 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따라 했다.

영접기도를 30번하면 입이 열리고 300번 하면 능력이 되고 3,000번 하면 전도자가 된다. 할 수 있다!

코로나시대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전도에 나선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마스크 전도로 내가 살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민족, 이세계가 구원 받는다.

오늘도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주소서!

이수 교수  
가족세트전도본부장  
경찰선교방송 MC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 비대면 시대 새로운 기독교교육 모델

CTS, 존리 대표와 랜선클래스 열어

코로나19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가 온라인을 통한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0월 19일(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인 존리 대표를 강사로 ‘제1탄 CTS 랜선 클래스’를 개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크리스천 금융 문맹 탈출하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강연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필리핀 등에서 수많은 시청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등 비대면 강의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기도 했다.

존리 대표는 강연을 통해 “한국교회 정서상 그동안 <돈>에 관한 이야기는 터부시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고 디스리도록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특히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로 인해 은퇴 준비가 시급하다며, 이는 교회 안 크리스천들 또한 예외가 아님을 주지시켰다.



특히, 이미 유대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하브루타나 율법교육 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지만 정작 유대인의 금융교육은 아직 관심 밖이라 아쉬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은 CTS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신청자에게만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강의를 시청한 시청자 중에는 목사님과 전도사 등 목회

자는 물론 장로, 권사 등 교회 중직자의 숫자가 많아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금융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CTS문화선교본부 담당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2021년 2월, 생방송 비대면 화상 강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CTS 온택트아카데미”를 오픈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CTS온택트아카데미”는 기존에 녹화된 영상(VOD)을 수강생이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형태가 아닌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강사와 생방송 소통 가능한 강의로서 현재 성서분야, 상담분야, 선교분야, 교양분야, 취미분야 등 20여 개 분야별로 강사진, 실전문학대학원 등 유명 교수진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 월드뷰티핸즈, 코로나19 극복 독거어르신 뷰티서비스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세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교수)는 지난 10월 27일(화) 마포구 대흥동 (사)해돋는 마을 웰드윈노인대학 강당에서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뷰티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어 지쳐있는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 에스터 회장(신한대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과 이화여대 교수(신한대)가 맡아 이마뷰 뷰티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장현일 WBH 이사장, 최세연 사

무국장을 비롯한 최세진 자원봉사자 대표 등이 참여했다. 특히 백명진 대흥동장과 박정원 사회복지팀장이 참석해 대흥동을 중심으로 어렵고 소외된 독거어르신에게 뷰티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최 에스터 회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뷰티서비스를 다시 시작해 소외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장현일 이사장(해돋는 마을)도 역시 “뷰티서비스와 함께 어르신께 대체식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월드뷰티핸즈(WBH)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단법인으로서 서울역 노숙자와 쪽방촌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대상으로 뷰티서비스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전문 뷰티서비스 기관이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산업체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승인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행정안전부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후원 및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대방 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http://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 공 동 성 명 서

#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교 총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 훼손은 물론 평등 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 사랑, 평등, 인권, 차별금지와 같은 보편적 이미지를 내포한 미명(美名)과 언어 상징의 조작으로 그 속에 반인륜적인 내용과 사상을 담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따듯하게 품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반인륜적인 시도도 있었다. 이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름답게 포장된 명칭과 달리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 법의 내면에 숨어있는 불평등, 차별, 비윤리, 억압의 내용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를 분열과 타락으로 점철(點綴)되게 할 것이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흔히 신앙의 자유를 일컫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반(反) 신앙을 강요하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법이다. 이 법은 차별 해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제정 취지의 표면적 선전과 달리,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법의 통제 속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이념화하며,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난민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이 모든 법률을 포괄하려는 듯이 한 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통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앞서 만들어진 법을 잘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회 윤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노력 대신에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견인해야 할 사안들을 사사건건 법을 제정해서 구속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일이다. 주어진 권력과 권한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시도는 자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스럽고, 오만한 일이다. 윤리성 회복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소 조항을 삽입한 끝없는 법의 제정으로 통제와 복종을 강제하겠다는 편견 가득한 시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교 총장들은 신앙의 자유 및 진정한 평등과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 법 제정을 계속 시도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교 대학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외 회원 교단장 일동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외 회원 총장 일동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 김근수 외 회원 총장 일동

[교단장·총회장, 감독회장] 명단]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신정호(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장종현(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윤보환(기독교대한감리회) 외 24개 교단

[대학총장 명단] 강우정(한국성서대학교) 고세진(\*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경수(나사렛대학교) 김근수(칼빈대학교) 김선배(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성수(\*고신대학교) 김영관(대전신학대학교) 김영만(\*전주비전대학교) 김용관(\*부산장신대학교) 김윤희(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재연(\*칼빈대학교) 권용근(영남신학대학교) 노세영(\*서울신학대학교) 모영기(\*동원대학교) 목창균(\*서울신학대학교) 문성모(\*서울장신대학교) 박노준(안양대학교) 신민규(\*나사렛대) 안민(\*고신대학교) 안주훈(서울장신대학교) 이길형(KC대학교) 이상인(성결대학교) 이은규(\*인양대학교) 이정숙(\*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재서(총신대학교) 임승인(\*나사렛대학교) 임성택(\*KC대학교) 임열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오덕교(\*힘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근모(\*명지대학교) 정구남(광신대학교) 정상운(\*성결대학교) 정인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일웅(\*총신대학교) 정효제(\*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홍호(\*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성현(개신대학원대학교) 주대준(\*선린대학교) 최대해(\*대신대학교) 최문지(\*협성대학교) 최성규(성산대학교) 최홍식(\*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최홍진(호남신학대학교) 한영훈(서울한영대학교) 허원규(부산장신대학교) 현유광(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황덕형(서울신학대학교) <가나다순 \*전직총장>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지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 교회 권사

## 사도행전 1.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임할 때  
불의 혀 갈라지듯 내맘 가르니  
뜨거움이 내안에서 벅차오르네

속사람이  
거듭났다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인도 웬 은혜인가!  
너와함께 한다는 말 참말이셨네.

어떡하면  
나의마음 주께 전하나...  
사랑한다 입술고백 기뻐하실까?  
영혼사랑 전도양육 최고라시네.

잠을 자려는데 자꾸만 사도행전이란 제목으로  
뭔가 쓰고 싶어진다. 그 마음 사라질까 순종하여 바로쓰다.



## 제10차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신학포럼 개최

‘ACTS 신학과 구약신학의 과제’란 주제로

‘제10차 ACTS신학포럼’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부설 신학연구소 주최로 ‘ACTS 신학과 구약신학의 과제’라는 주제 하에 지난 10월 19일(월) 양평 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ACTS신학포럼은 ACTS 신학공관운동의 일환으로서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세미나로 매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열리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10차 ACTS신학포럼은 신학연구소 소장인 박응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구약신학 교수인 조희 교수의 “선지서의 ‘여호와’의 낱’ 개념으로 본 ACTS 신학공관운동의 타당성과

제언”과 구약신학 교수인 이한영 교수의 “웨슬리의 구약설교와 신학”이었다.

조희 교수는 ACTS 신학공관운동이 강조하는 기독교의 중심진리의 의미와 가치를 논한 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사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눅 24:44)”라는 말씀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롬 3:21)”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과 바울이 중심진리를 구약과 연결시켜 설명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그는 중심진리를 개인적 구원의 차원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구속사의 틀을 빌어 하나님의 장

조 목적의 회복과 성취의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중심진리를 해석의 원리로만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구성적 원리로 사용해야 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화로운 신학공관운동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학사 에스라의 모범을 따라 학자적 연구와 함께 그것을 준행함으로써 영적 생명력과 나눔의 열정을 회복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한영 교수는 “ACTS신학공관운동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신앙의 확립을 통한 교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신학적 근거를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그리고 웨슬리로부터 찾고 있다”라고 했다.

### 이수혁 주미대사의 국정감사장에서 70주년 한미동맹 관련 부적절한 발언, 살롬나비 논평

#### 4면에서 이어짐

그간 자유시장경제의 확장에 힘입어 공산체제가 이념적으로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어 상호 이해와 힘의 세력균형을 이루고는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적각일 뿐 현실은 헤쳐할 수 없는 구조적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는 변함없이 그대로 이고, 북-중 협력관계를 외치는 구호와 그 뿌리도 변화된 것이 없다. 이 고정 틀을 깬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의 틀을 무시하고, 친중 친북 노선으로 치닫게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진술한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남북한이 이념의 벽을 넘어서 오랫동안 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위험들이 밀려올 것인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 민주체제는 제대로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산화의 우산 아래로 짓밟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들이다.

중국과 북한의 콘크리트 관계를 고려할 때 설사 우리가 친중, 친북 정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중북관계를 때어놓을 수가 없는 지정학적 구조가 존재이다. 중북관계는 이념적으로나 역사적, 군사적으로 그만큼 긴밀하고 독특한 협력관계로 동여매는 그들만의 특별한 동치는 기질이 있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양보할 수도 없다. 중국 나름의 국가안보적 입장 때문이다. 북한 역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 따라서 북한이 진미체제에 동화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항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북 협력관계 위에 손가락 하나 더 얹듯이 대한민국이 묻어간다면 그 결과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공산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는 초등학교생 정도의 셈법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완벽한 중간이란 공간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때 북한 측이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설이 떠돈 적이 있었다. 이제는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이 친중, 친북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공산체제로 흡수통일’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우리에게는 중국과 북한을 자유민주체제로 전환 시킬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산체제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체제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산체제 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생존권과 생명권에 어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은 일당 독재체제이다. 집권자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송곳을 조여서라도 입을 다물게 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파라다이스라고 외친다. 그것이 속임수이기 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4. 문재인 정부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중립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다.

10월 23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념사에서 6.25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중국 인민은 침략자를 때려눕히고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했다”며 “이를 통해 신중국의 대국 지위

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시진핑은 6.25 전쟁을 미제국주의를 대항한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이고 “중국이 승리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왜곡하였다. 6.25전쟁은 남북의 내전으로 규정할 것도 사실에 어긋난다. 중국이 6.25전쟁을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한 것은 6.25 전쟁의 왜곡이다. 이는 6·25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을 받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 전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6·25는 김일성이 마오쩌둥의 군사 지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발발했다. 6·25 직전 중국이 북에 넘긴 조선인 사단 2개는 남침의 주력 부대였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이나 항의 한마디 없이 침묵했다. 정부는 6·25 당시 한·미가 함께 고난을 겪었다는 한국 아이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발언을 문체 삼았던 중국 매체 한구시보에 대하여도 아무런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아무런 진실 규명도 못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5. 오늘날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몽이 아니라 선진자유한국몽을 꾸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인이 중국몽을 꾸어야 한다고 말하나 이는 나라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니다. 인권이 말살된 공산국가의 중국인은 자유국가인 한국몽을 꾸어야 한다. 메레디스 빅토리호(號)는 군용 선박이 아닌 민간 화물선이었으나 1961년 12월 북한 흥남에서 국군 및 유엔군, 그리고 북측 파나민을 싣고 남한으로 가는 흥남철수작전에 동원됐다. 흥남에서 출발하여 거제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착하여 1만4천명 파나민을 구출했다. 빅토리호는 자기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민간인을 태우고

있다. 중국군이 쳐들어오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빅토리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파나민을 데리고 왔다. 무려 1만4000명 이상의 파나민을 태우고 흥남을 출항해 시를 만난 196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거제도에도 도착했다.

이 배에는 분 대통령의 부모도 타고, 분 대통령은 1963년 1월 24일 거제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 전쟁 후 포로는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 국제규정이었으나 자유인 반공포로들(2만 8천명)을 미국 트루먼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해주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으로 돌려보낸 소련 포로들은 “미군들의 첩자”라고 모두 처형되었다. 공산국가에서 탈출한 반공인사들, 자유민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경제대국이라는 한국몽을 실현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6. 미국과 중국, 강대국의 틈에서 우리가 취할 외교노선은 친미교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는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과거 역사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친미교조’ 외교의 기본 틀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문자 그대로 미국과는 사이좋은 협력관계로서 더 가까이 사랑하며 친(親)하게 사귀는 것이고, 중국과는 주고받는 교제(交際)의 관계 정도로 지내야 한다. 혹자는 소위 G2라고 불리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처지를 감안하여 균형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거나 실용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마치 새롭고 진취적인 외교정책이나 되는 양 떠들어 대지만 사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엉터리 술책일 뿐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균형자 외교론을 실행해 본 바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리 외교론을 시도해 본 바 있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오늘의 국제관계가 증명하고 있다. 국익이나 국가안보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까닭이다. 고래싸움의 틈새에서 새우가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한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한계는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저마다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데 유독 우리가 실리외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진짜 실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한계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처럼 우리사회 곳곳에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친중, 친북 발언들을 심각하게 읽어내고,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선택 사항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분명히 이 국론분열로 치닫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국가의 미래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다원사회, 다원체제 역시 국가 간에 상호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접국인 중국을 두려워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일부러 소원하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중국은 우리가 친미 일본도가 될 경우 자신들의 국가안보적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우리가 상호주의의 틀을 깨면서까지 흔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총성 없는 외교의 전쟁터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

2020년 11월 1일

살롬나비를 꿈꾸는 나비행동

## 사설

### 한·미 상호방위조약 바탕 한·미 동맹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데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우리 국익이 왜야 미국을 선택할 것” 이수혁 주미대사의 이 같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동맹 이탈도 가능하다는 언급이다. 또 6월에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리”라고까지 했다. 경중을 분별하지 못한 표현이다.

미 국무부는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지랑스럽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맞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한 동맹관계가 지난 70여년 대한민국 존립과 발전에 절대적 역할을 해왔음은 이전의 여자가 없다. 그동안 한국 국력이 크게 신장하고 국제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한·미 동맹은 오히려 경제와 세계 평화 등으로 확장하며 발전해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6조는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 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1년이면 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한 주미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한 저의가 무엇인지 한·미 동맹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 남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스스로 남한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한림 부정 발언이다. 한림상 북한도 한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권이 나 지지층은 아무렇지도 않다. 왜? 같은 사고니까.

더욱이 내로남불은 극단적이다.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현 정부의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갖는다고 했다. 피포위 의식이란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공동의 적서가 발동해 강한 내부 결속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즉 흑백 사고에 빠지고 외부인을 신뢰하지 않으며, 두려움에 시달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려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피포위 의식을 가진 집단의 말로는?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팩트는 걸러버리고 점점 극단으로 치닫다가 자기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잃고 나서 깨닫는 것은 비극이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거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잠 12:6)

### 방역정치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

최근 여장 H교단에서 여론 조사한 것을 보면, 코로나19바이러스 문제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기독교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82%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교회도 국가 방역의 하점과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이다. 교회가 코로나에 대하여 어떤 방역에 임하는지를 알면, 이처럼 폭력에 가까운 보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가 방역을 위한 일에 최고의 파트너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과 부담, 그리고 비난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악의적인 보도 때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정부가 교회를 비협조적이고 막무가내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결국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 계층 간 ‘뺨 가르기’를 종교 간에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고통과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독교단 통제하려 한다는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권언발자 관계에 있는 언론들

의 왜곡·편향·과장되고 ‘교회 허물기’로 의도된 보도행태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언론의 최소 의무인 균형·공정보도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언론계의 신뢰도만 계속 하락시키게 될 것이며, 교회는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표적이 되어, 한국교회의 줄기와 뿌리와 같은 신앙에 심각한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 미래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될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

언론이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이런 불공정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온 국민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소멸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가 방역에 힘써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언론들은 무차별적이고 ‘용단 폭격’ 식의 교회관련 보도를 자양(止揚)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흡수를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고통한 코로나 정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익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li> <li>●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li> <li>●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li> <li>●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li> </ul>

###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